

# 세종시, 테크노파크와 손잡고 AI·SW 인재 키운다

윤 이승동 기자 | ② 승인 2020.09.04 | 📄 11면

과기부 주관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최종지원 대상 선정  
2023년까지 22억 6000만원 투입·360명 양성… AI 복합교육장서 교육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023년까지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핵심인력 360명을 양성한다.

충청권 컨소시엄(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최종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사업이다.

충청권 컨소시엄은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융합인재 4000여명을 양성하는데 238억원을 쏟아 붓는다. 세종시는 오는 2023년까지 22억 60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인력 36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충청권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조성될 세종 AI 복합교육장에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심화→비즈니스모델'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 곳에선 수료생의 취·창업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컨퍼런스 기회 제공과 함께 인공지능분야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는 이달 중 세종 AI 복합교육장을 조성하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http://www.sejong.go.kr))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남궁호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해 지역 산업계의 전문인력 수급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mailto: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동 기자